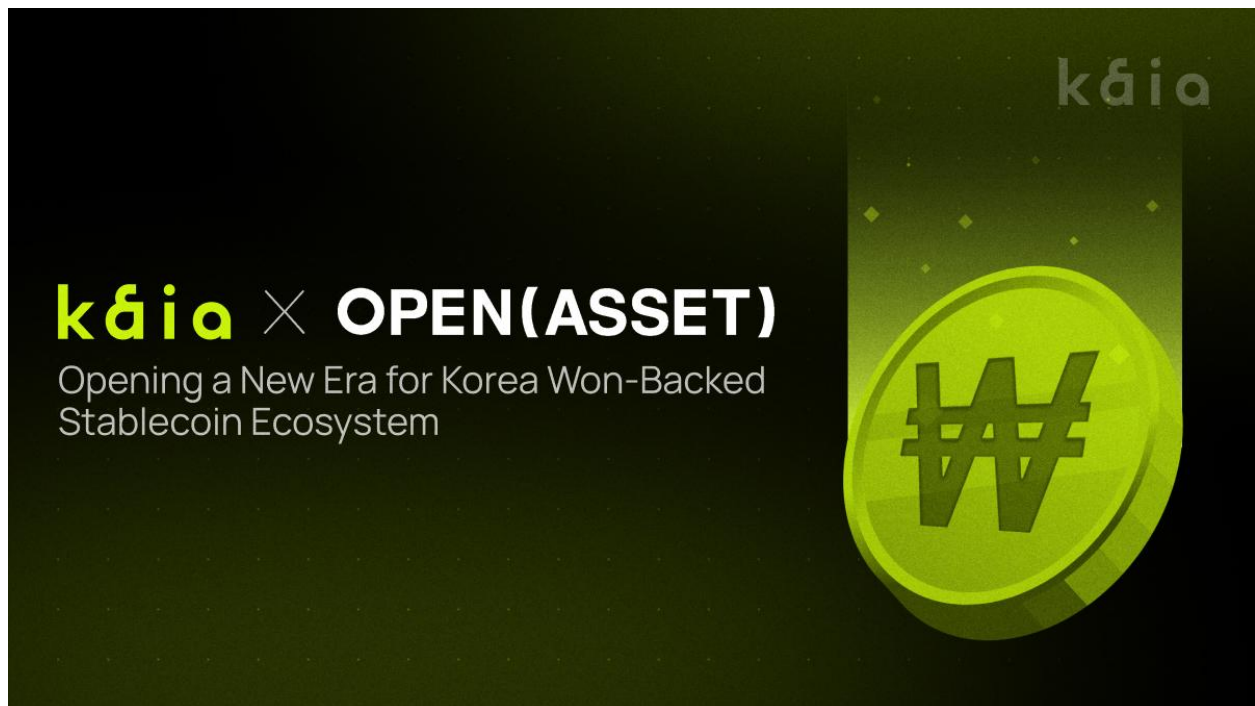


카이아, 다윈KS의 DTM 플랫폼 통해

카이아, 오픈에셋(Open Asset) 원화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및 발행 대행 사업 협력 위한 파트너십 체결

- 오픈에셋, 국내 법제화 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요를 충족 위해, 카이아 네트워크 상에서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행 서비스 제공 계획
- 오픈에셋, 한은 CBDC 시범사업, 시중 은행 간 '이중서명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스템' 기술 검증, 안랩블록체인컴퍼니의 오프라인 결제 PoC, 한국투자증권의 STO 시스템 구축 등 검증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력 보유



2025년 8월 22일(금)—카이아 DLT 재단(Kaia DLT Foundation, 이하 카이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추진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기업 (주)오픈에셋(Open Asset Inc., 이하 오픈에셋)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서비스 출시 및 실사용 사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한다.

특히 오픈에셋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기관 토큰증권(STO) 인프라, 플랫폼 구축 등 그간 축적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카이아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해, 카이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또한 법제화에 따른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카이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과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카이아는 이에 협력해 자체 블록체인 기술 및 생태계 내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한다.

오픈에셋은 과거 클레이튼(현재 카이아) 메인넷 개발진과 카카오에서 개발한 디지털 지갑 '클립(Klip)'의 핵심 인력들이 주축 멤버로 구성됐으며, 카카오 내 한국은행 CBDC 사업을 진행한 CBDC본부와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사내벤처 'Won CIC'를 모태로 설립됐다.

오픈에셋은 시중 은행들과의 '이중서명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스템' 기술 검증,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의 오프라인 결제 개념검증(PoC), 한국투자증권의 STO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발행 기술에서 유통 인프라까지 사업 영역을 본격 확장하며, 웹3 기반 실물결제 생태계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오픈에셋의 김경업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아시아 대표 블록체인인 카이아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열어가는 시작점으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O’의 발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사가 본업인 결제, 송금 등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브랜드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카이아 DLT 재단의 서상민 의장은 “오픈에셋과 새로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존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통해 CBDC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주요 멤버 기반의 오픈에셋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관련 전문성을 공유할 것이며, 이는 카이아 생태계가 모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허브 전략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오픈에셋(Open Asset) 소개

오픈에셋은 카카오 내 한국은행 CBDC 사업을 수행한 CBDC 본부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 Won CIC를 모태로 설립되었다. 이후 2개 시중은행과의 이중서명 발행 시스템 기술 검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역량을 입증했으며,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Web3 디지털 금융 전문기업이다. 블록체인 메인넷, CBDC, 토큰증권(STO),

보도자료

디지털 지갑, 온체인 결제, DeFi 연동 등 이미 검증된 금융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를 대표하는 규제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되고자 한다.

카이아(Kaia) 블록체인 소개

카이아(Kaia)는 웹3의 가치와 기술, 프로젝트들을 해석하고 혁신해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카이아는 2024년 양대 IT 기업 카카오(Kakao)와 라인(LINE)이 개발한 클레이튼(Klaytn) 및 핀시아(Finschia) 블록체인 거버넌스 멤버들의 통합 합의를 통해 출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잠재적 사용자 풀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웹3 생태계를 구축했다. 카이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웹2 메신저 서비스들에 준하는 빠른 속도로 웹3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연결, 창조, 협업 활동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생태계 기여자가 될 수 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처:

Kaia DLT Foundation | PR & Communications Lead

김영재(Kevin Kim)

010-8939-8475 | kevin.kim@kaia.io | TG: @mayoungzee | LinkedIn: linkedin.com/in/kevin-kim-39290994